

금호석유화학, 이서형 대표 추가 선임

박찬구 회장과 공동대표 체제 ... 금호타이어는 박세창 사내이사 선임

금호석유화학은 이서형 대표이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3월30일 이사회를 열고 8개월 만에 경영에 복귀한 박찬구 회장 외에 이서형 전 금호건설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기존 대표이사였던 박삼구 그룹 명예회장과 기옥 전략경영본부 사장은 임기 만료 등으로 물러났다.

금호석유화학은 앞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법무법인 양현의 이준보 대표변호사와 반기로 전 한국인프라자산 운용 대표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박찬구 회장은 이사회에 앞서 기자들에게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라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2009년 12월 금호산업에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입해 채권단의 반발을 샀던 것과 관련해 당시 매입했던 주식 2226만9000주(12.71%)를 금호산업에 다시 매각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도 30일 주주총회를 열어 박삼구 명예회장의 장남인 박세창 전략경영본부 상무와 기옥 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금호타이어는 그동안 박삼구 명예회장, 김종호 사장, 박찬법 그룹 회장의 3인 대표이사 체제였으나 박삼구 회장은 물러났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31>